겨울 독감 A형·B형 두번 걸릴 수 있다

A형 이어 B형 독감도 현재 유행 중

질병당국, 백신으로 독감예방 권고

올 겨울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번 독감을 앓은 사람도 겨울이 지나기 전에 다시 독감에 걸릴 수 있다고 보건당국과 일선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A형 독감에 두번 걸릴 수도 있고, A형과 B형 독감에 번갈아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51주(12월 16~22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71.9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2018년 45주(11월 16일) 당시 1000명당 7.8명 수준이었던 외래 환자가 약 한 달 만에 9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 절기 독감 유행정점(2017년 12월 31일~2018년 1월 6일, 72.1명)에 근접한 것으로 올해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51주에 이번 절기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A형과 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올해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51주까지 총 465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A(H1N1)형 372건(80%), A(H3N2)형 92건 (19.8%), B형 야마가타 계열 1건(0.2%) 등으로 나타났다.

A형과 B형이 동시에 유행한다는 것은 각각 2종류씩 4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보건당국이 주목하는 독감은 A형 2 종류(H1N1, H3N2)와 B형 2 종류(야마가타, 빅토리아) 등 총 4종류다. 다만 같은 형 바이러스 간에는 교차면역이 있어 A형 H1N1에 걸린 사람이 같은 A형 H3N2에 걸릴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B형도 마찬가지다.

결국 한번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회복한 환자의 경우 다른 형의 독감에 순차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독감이 다시 발병할 수도 있다. 몸 속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강서영 교수는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내에 존재하는 뉴라미다제 효소를 억제해서 바이러스가 체내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며 "타미플루로 독감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또 다시 독감에 걸릴 수 있고, 다른 균주에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형 독감과 B형 독감에 동시에 걸릴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4개 종류 독감에 걸릴 수 있지만 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차반응이 있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고 나면 같은 형에는 약해지고, 다른 형에 대해서도 교차반응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통한 독감 예방을 권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3가 백신은 올해 유행하는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4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2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독감에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항체가 생겨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독감에 걸릴 수 있고, 가능성은 낮지만 새로운 종류의 독감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독감 백신이 그 해에 유행하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백신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효과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감 증상은 기침이나 콧물 같은 상기도감염 증상보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오한, 두통, 몸살, 근육통 같은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

영유아와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는 집단 감염 예방 차원에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 생활하는 고위험군 시설에서는 직원이나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해야 한다. 물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뉴시스

큰고니 가족의 나들이 추위가 다소 누그러진 3일 오후 경남 남해군 한 갈대밭에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가 찾아와 겨울을 나고 있다.

전두환, 5·18때 광주 찾아 진압 방식 논의…기록 첫 발견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찾아 진압 방식을 논의했다고 기록한 실록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됐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3일 고 천금성 소설가가 펴낸 '10·26 12·12 광주사태' 후편 내용 등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10·26 12·12 광주사태' 후편 220~221쪽엔 '전투병과교육사령관으로 소준열 소장이 새로 부임했다. 소 전교사령관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머리를 맞댔다. 하루라도 빨리 평정을 시켜야겠다는 소 사령관의 말에 정 사령관도 동의했다. 그러나 현지로 내려온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고 적혀있다.

이어 '(전씨는)만약 계엄군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하면 대단한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기록돼 있다.

5·18 기록관은 당시 보안사령부가 서울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현지로 내려온'이라는 대목은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온'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5·18 기록관은 또 1980년 5월21일 전교사령부 또는 광주비행장에서 전씨와 소준열·정호용 사령관이 회동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남규 기자

中 창어4호 인류최초 '달 뒷면' 착륙 성공

중국 달탐사선 창어4호가 3일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데 성공했다.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국가항천국은 창어4호가 베이징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26분(한국시간 오전 11시26분)에 예정됐던 착륙지점인 177.6도, 남위 45.5도에 정확하게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착륙지점은 달 뒷면 남극 근처 에이트켄 분지의 폰 카르만 크레이터 인근으로 알려졌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탐사선이 착륙하기는 인류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베이징 항천비행통제센터는 창어4호에 착륙 명령을 내렸다. 서서히 착륙하던 탐사체는 달에서 6~8km 떨어진 곳에서 자세 조정을 진행했고, 100m 떨어진 곳에서는 장애물 식별 작업을 진행하고 착륙에 성공했다.

착륙선은 11시40분께 통신 중계 위성 '췌차오(鵲橋·오작교)'를 통해 첫 달 뒷면 사진을 지상으로 전송했다.

창어 4호가 착륙에 성공함에 따라 착륙선 안에 들어 있는 무인 로봇 탐사차가 나와 본격적인 탐사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 탐사차는 지형을 관찰하고, 달 표면의 토양과 광물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천문 관측, 중성자 방사선 탐지, 밀폐 공간 내 식물 재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창어 4호는 지난 8일 중국 쓰촨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 3호' 로켓에 실려 우주로 떠났다. 12일에는 창어 4호가 달 궤도에 진입했다.

중국은 창어 4호가 착륙에 성공한 이후 2020년 창어 5호를 추가로 발사해 달 착륙 후 샘플을 수집하고 지구로 귀환시키는 데 도전한다. 이후 우주인의 달 착륙과 유인 달 기지 건설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 지도부 체포

프랑스 경찰 당국이 2일(현지시간) '노란 조끼' 시위대 지도부로 알려진 에릭 드루에를 체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경찰 측은 드루에가 집회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날 파리에서 시위를 진행했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드루에는 이번 주 일요일(6일)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으로 시위대를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의 체포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드루에는 이날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에서 5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지난 7주간 이어진 시위 중 사망한 이들을 위해 촛불을 밝힐 계획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에는 작년 12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돼 오는 6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드루에의 체포 이후 프랑스 좌파당 대표인 장 뤼크 멜랑숑은 트위터를 통해 "이는 권력 남용"이라며 "정치화된 경찰이 노란 조끼 시위대의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작년 11월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는 오는 5일 파리에서 제8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시위대를 향해 "증오에 찬 군중"이라며 "이들의 분노는 부당하고,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며 시위대와 각을 세웠다.

'셧다운'으로 美 국립동물원에 기아 위기

배고픈 판다들은 미국 정부의 부분 셧다운이 뭔지 아랑곳하지 않는다. 워싱턴 국립 동물 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 동물인 이들은 그래도 먹어야만 한다. 수 천마리의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1월1일 이후에 문을 닫아도 먹이활동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 곳 워싱턴 동물공원은 스미소니언 박물관 체인의 일부여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금으로 새해 첫 날까지 운영을 계속해왔지만, 이제는 그 돈도 다 떨어졌다.

국립동물원의 애날리사 마이어 대변인은 "우리 계획은 어떻게든 동물들은 현재 수준의 돌봄을 계속하는 것이며, 그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물들의 임신여부 측정, 배설물의 치우기 등 기본 업무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곳 동물원과 부설 생물보존연구소의 직원 321명 가운데 절반은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 공개는 여전히 하지 않는다. 1일에도 평년 같으면 탐방객으로 붐빌 코네티컷 애비뉴의 동물원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